

국가 안녕, 호국, 남북통일 기원

제25회 경율론(經律論) 삼장(三藏)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화엄의 바다에 다 모이십시오”

법왕사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제25회 백고좌대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법회란 100일 동안 100분의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쉬지 않고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고승대덕들을 두루 초청하여 대승불교의 전반에 걸쳐 수준 높은 법문을 듣고 큰스님들을 친견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오니 불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동참바랍니다.

증명 :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實相 합장



●첫째날
9월 1일
입재 법문
혜인스님
은해사 조실
제주약천사 회주



●23일차
9월 23일
특별초청법회
성담스님
효심사 주지



●36일차
10월 6일
이동법회
송담스님
안천 용화사



●100일차
12월 9일
불명수지
보살계 수계 법회
혜능스님
전 해인사 올원장

◆ 일시 : 2013년 9월 1일 ~ 12월 9일 (100일간) 법문시간 매일 오전 11시

◆ 장소 : 법왕사 복지관 3층 대법당

※ 백고좌법회 기간 중 영가천도 49재에 올릴 영가 접수를 받습니다.

※ 법회 전장면을 동영상으로 만들어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 BTN-TV - 10시 30분, 14시, 18시, 22시

- 자막 9시 36분, 11시 36분, 13시 30분, 13시 30분, 19시 45분

백고좌법회
방송광고 시간표

※ BBS라디오 - 08시 52분, 10시 53분, 16시 48분, 22시 3분

법사명단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회 차	날 짜	법사스님	약 력
1일차	9월 1일 回	혜인스님	은해사 조실, 제주약천사회주	11일차	9월 11일 罔	지만스님	통도사 반야암
2일차	9월 2일 罔	활안스님	사)한국불교금강선원총재	12일차	9월 12일 罔	묘허스님	방곡사 회주
3일차	9월 3일 罔	관일스님	보현사(법사)	13일차	9월 13일 罔	원일스님	진명사 주지
4일차	9월 4일 罔	묘각스님	묘현사 주지	14일차	9월 14일 罔	자광스님	불교사회복지회주
5일차	9월 5일 罔	실상스님	법왕사 주지	15일차	9월 15일 回	대주스님	대륜사
6일차	9월 6일 罔	혜광스님	대전 법화사	16일차	9월 16일 罔	대현스님 (배구니)	정암사 주지
7일차	9월 7일 罔	각현스님	연꽃마을 대표	17일차	9월 17일 罔	혜해스님	경산 반웅사
8일차	9월 8일 回	혜성스님	삼불사 주지	18~20	9월 18일~20일	추 석 연 휴	
9일차	9월 9일 罔	현웅스님	육조사 선원장	21일차	9월 21일 罔	부명스님	백령도 몽운사 포교당(우리절)
10일차	9월 10일 罔	성범스님	구봉선원	22일차	9월 22일 回	영산스님	해룡사 주지

법왕사 제2해오름요양원 및 병원 건립 한가족 한평 불사에 불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T. (053)766-3747 F. (053)767-6095
www.bubwangsas.or.kr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
www.silver79.kr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9 | Vol. 232호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대한불교
조 계 종 법 왕 사



해오름요양원

한결 같은 마음

원공당 정무 대종사 각령단[覺靈壇]을 모셨습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대종사이자 원로의원이신 원공당 정무 큰스님은 법왕사의 회주로 주석하시다가 지난 2011년 입적하셨습니다. 큰스님은 한국 현대 선불교의 대표적 선사이신 전강스님의 법맥을 이으시고 이를 법왕사에 전해주신 분입니다.

법왕사에서는 큰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정법 수행 풍토를 드높이고자 큰스님의 각령단을 사리함 봉안과 함께 본당에 조성하고 벽화까지 완성하였습니다. 각령이란 입적하신 고승의 혼령(魂靈)을 높여 이르는 말로 각령단이란 스님의 진영을 봉안하여 단을 조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참배 바랍니다.

C.o.n.t.e.n.t.s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우라도 부처님 같이
마음을 맑게 세상을 향기롭게

2013
9

Vol. 232호



- 04 깨침의 향기
꼭 갇아야 할 열가지 부모님 은혜 · 원공당 정무 대종사
- 08 비술산방
한가위에 생각하는 불교식 차례 · 실상 주지스님
- 10 법왕논단 | 종교와 철학
잘못된 역사 방지하면
불행한 역사 되풀이 한다 · 본원스님
- 14 불교상징의 세계 XIII
깨달음을 위한 불자들의 귀의처, 탑 · 조명래
- 20 명찰순례
비구니의 전통 강원 김천 수도산 청암사
- 24 특집 | 화보
백괴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백중맞이 영가천도 49재
- 26 법왕사소식
- 29 법왕사게시판
- 31 해오름게시판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 | 등록일 2012년 9월 14일 | 등록번호 수성 라 00017 | 발행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104 www.buwangsa.or.kr | 발행일 불기 2557(서기 2013)년 09월 01일 발행 | 통권 232호 | 종무소 T. (053)766-3747 · 9088 F. (053)767-6095 | 발행 겸 편집인 실상스님(권오범) | 인쇄인 강영도 | 편집위원장 원인스님 | 편집위원 묘도, 영일, 성해, 정명, 상철, 자유, 강선옥, 고재일 | 기획·제작·디자인 다산미디어 (053)424-3322

법왕지 월간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매달 불제자 여러분에게 다가갑니다. 더욱 알차고 맑고 아름다운 사람들의 따뜻한 이야기가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꼭 갚아야 할 열가지 부모님 은혜

원공당 정무 대종사



생일(生日)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입니다. 어머니가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시며 우리를 낳아주신 날입니다.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은 어머니가 드셔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왜 이 세상에 왔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바로 은혜를 갚기 위해 사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 자가 보살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삶 자체가 은혜를 갚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 세상의 모든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다 갚으면 이 세상에 와서 해야 할 일도 다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건재(健在)하게 살 수 있는 것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국가가 주는 은혜, 동포들끼리 주고받는 은혜, 스승에 대한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것이 왜 이리 힘들고 어렵냐’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네 가지 은혜를 알고 그것을 갚아야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는 순간, 은혜는 바로 빛이 되는 것입니다. 빛을 제때 안 갚으면 죄가 됩니다. 그럼으로 사람이 태어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끔 하고 그것을 갚을 수 있도록 가르쳐주는 것이 ‘옴’으로 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선인(善人)이나 악인(惡人)이나 하는 것은 바로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척도(尺度)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는 은혜의 중요성을 가르치기보다는 자유(自由)와 권리(權利)를 너무 신장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별로 재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지만물은 자기로 인해 생겨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서양의 주된 사상입니다. 반면 ‘인간은 천지만물을 위하여 태어났다’는 것이 부처님 사상입니다. 그런데 천

지만물이 자기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利己主義者)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불법(佛法)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전생과 현생을 넘나들었기 때문에 전생에 부모 형제 아닌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입고 사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께 받은 은혜는 이루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불교에서 부모님의 은혜와 그것에 대한 보은(報恩)의 방법을 써 놓은 것이 바로 『부모은중경』입니다. 부모은중경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몇 날 며칠을 다해도 모자랄 것이고 오늘은 그 중에서 다생부모십중대은(多生父母十重大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생부모십중대은은 몇 생을 걸쳐 입은 부모님의 열가지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열달 동안 뱃속에 품고 지켜주시는 회탐수호은(懷耽守護恩)이고 두 번째 은혜는 자식을 낳으실 때 어떤 고통도 마다하지 않고 이겨내신 임산수고은(臨產受苦恩)입니다.

생일(生日)은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셔서 내가 이 세상에 나온 날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가 엄청난 고통을 참아내시며 우리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나온 것입니다. 어머니가 병원에 가서서 무던히 수고한 날입니다. 그날이 바로

생일입니다. 그래서 생일날 미역국을 먹어야 할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어머님입니다. 선물도 어머니가 받아야 합니다. 생일 축하 노래도 “생일 축하합니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날 낳아주신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식을 잉태해 있는 동안 잘 낳아야 한다는 근심에 찬 어머니가 자식을 무사히 낳은 뒤 그때서야 이 근심을 잊는다는 생자망우은(生子忘憂恩)이고 네 번째는 연고토감은(咽苦吐甘恩)입니다. 즉 쓴 것은 삼키고 단 것은 뱉어서라도 자식을 먹인다는 것입니다. 마른 자리에는 아기를 뉘고 젖은 자리에는 본인이 눕는 은혜인 회건취습은(廻乾就濕恩)이 다섯 번째 은혜입니다.

여섯 번째는 젖을 먹여 길러주신 은혜인 유



부모님은 오직 자녀를 위해 온 삶을 바칩니다. 자신의 노후는 뒷전이고 오직 자녀를 위해 모든 삶을 희생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보살입니다.

포양육은(乳哺養育恩)이고 일곱 번째는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세탁부정은(洗濯不淨恩)이고 여덟 번째는 원행억념은(遠行憶念恩)으로 자식이 멀리 떠나면 늘 걱정하고 무사히 집에 돌아와야 비로서 마음 놓고 주무시는 부모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위조악업은(爲造惡業恩)입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님입니다. 다생부모십중대은의 마지막은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자식을 걱정하는 구경연민은(究竟憐愍恩)입니다. 80살 먹은 자식도 걱정되는 것이 바로 부모님 마음입니다.

부모님의 필생의 삶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위해 온 삶을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노후는 뒷전이고 오직 자녀를 위해 모든 삶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런 ‘봉사’를 부담이나 책임으로 느끼시는 것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생각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보살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자녀가 아닌 사람이 없고 부모가 아닌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은 자녀이지만 언제 인가는 부모가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 삶의 근본은 거룩한 부모님의 뜻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원하는 것을 파악하고 그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효도입니다.

한가위에 생각하는 불교식 차례

실상스님 / 법왕사 주지



추석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준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햇곡식과 햇과일을 받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불자라면 반드시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기승을 부리던 더위도 세월의 흐름은 거역하지 못하고 한 풀 꺾여 아침저녁으로는 제법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계절입니다. 한여름 땀별을 이겨낸 들판의 온갖 곡식과 과일은 이제 한껏 무르익어 수확의 풍요로움을 만끽하는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

이 달에는 우리 민족의 큰 명절인 한가위

가 들어 있습니다. 햇곡식과 과일을 거두어 들여 그 수확의 기쁨을 축제로 승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음덕으로 보살펴 주신 조상님들께 차례를 올리는 명절이 한가위입니다.

한가위 풍속의 기원을 살펴보면 삼국시대 신라에서 7월 보름부터 길쌈 대회를 시작하여 8월 보름에 그 결과를 놓고 경쟁하면서 함께 축제 한마당을 즐기는 것에서 비롯되었



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가위는 우리나라에 불교가 전래된 시기와 거의 비슷한 시대에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자라면 한가위 추석을 맞이하면서 그 제례 절차에 대해 한번쯤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늘 들곤 합니다.

명절에 지내는 차례는 불교문화에 널리 퍼져 있는 차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보통 조상들의 기일(忌日)에 지내는 제식(制式)은 '제사(祭祀)'라고 하는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지내는 것은 차례(茶禮)라고 합니다. 차례는 술이 아닌 차(茶)로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불교에서 전래된 것이 명백합니다.

불교식 차례는 삼국, 고려시대를 거쳐 일상 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치러지던 행사였으나, 불교를 억압했던 조선조에 들어 점차 사라지다가 임진왜란 후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와 함께 차를 즐겨 마시던 풍속마저 쇠퇴하면서 술을 마시는 풍속이 유행하기 시작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실 차례라고 하는 그 전통은 지금까지 고스란히 이어져 오고 있지만 정작 차례의 예법은 유교적이 방법을 따르고 불교식 상차리거나 차례 지내기에 대한 방법들이 거의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같은 이유로 많은 불자들은 추석이나 설 등 명절에 차례를 지낼 때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내고 싶어도 차례의 예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어 결국 유교식으로 차례를

지낼 수 밖에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우리 불자들은 차례를 불교식으로 지낼 때가 되었습니다. 유교식으로 따져도 차례상 차리는 방법은 지역이나 가문마다 차이가 나는데 불교식 차례 지내기에 대한 정확한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부처님의 정법에 따라 차례를 지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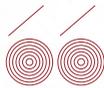
특히 차례는 술이 아닌 차(茶)로 조상님의 제사를 지내는 의식을 의미하는 만큼 사찰에서 올리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사찰에서 올리는 제사는 조상에 대한 공경의 의미뿐만 아니라 조상의 극락왕생(極樂往生)을 발원하는 천도의 의미도 갖는 만큼 명절 차례는 사찰에서 올리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물론 불교인이 일반 가정에서 차례를 지낸다고 하면 유교식인 술과 고기 대신에 차와 과일을 조상에게 받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차례는 조상들의 영혼을 부처님 앞으로 인도하여 모든 장애가 소멸될 것을 기원하며 올 한해도 부처님의 자비광명의 가피력을 발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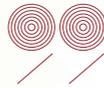
특히 추석은 풍성한 곡식을 거둘 수 있도록 해 준 조상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햇곡식과 햇과일을 받치는 행사이기 때문에 불자라면 반드시 불교식으로 차례를 지내는 것이 옳다고 하겠습니다.

잘못된 역사 방치하면 불행한 역사 되풀이 한다

본원스님 / 토굴 정진중



“말과 생각이 씨앗이 되어 인(因)과 연(緣)이 화합할 때
나를 둘러싼 환경이 되어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 하는 것을…….”



일본이 조선의 합병을 합리화하려는 의도로 조선의 망국원인이 ‘사색당쟁’임을 내세우면서 ‘당쟁’은 “주의(主義)를 가지고 서로 대립하는 공당(公黨)이 아니고 이해를 가지고 서로 배제·배타하는 사쟁(私爭)”이라고 나쁜 의미로 규정했다고 해서, 조선의 고질적인 파당·파벌이 이 땅에 심어놓은 뿌리 깊은 불신풍조가 덮여져야 하며, 조선왕조의 쇠망에는 별 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

이는 ‘역사를 보는 시각과 기준에 따라 판

단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고 말할 여지조차 불필요하다. 이를 인정하면 또 다른 오류를 범할 수 있는 악순환의 고리를 자주적인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뜻이 된다.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그르친 역사를 그대로 묻어두면, 원치 않는 불행한 역사가 되풀이 된다는 교훈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집단의 이익과 사욕을 채우기 위해 파벌간에 피비린내 나는 지리한 싸움 끝에 국력을 쇠퇴케 한 파벌적 붕당이, 왕조 체제에서 비판과 견제 역할도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쟁

이 아닌 공당이었다고 하여, 근대 우리 정치가 앓는 오래된 고질적 병폐와는 직접적 관련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민족의 과업이면서도 좀처럼 그 끝이 안 보이는 통한의 분단 60년 지속이 전혀 우리 탓이라고 할 수 없는 것과 같다. 분단은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 강대국들의 이해관계 때문이고, 따라서 우리가 겪는 분단의 아픔을 그들이 책임져준다는 현실 불가능한 믿음을 갖는 것과 같은 꼴이 된다.

● ● 유학은 실리보다 명분 중요시

일제 강점기, 병자호란, 임진왜란 등 외세로부터 겪은 국난의 일차적 원인을 두고, 나라 상황과 국제정세를 내다보고 미리 알아서 충분히 대비하는, 부국강병(富國強兵)의 길로 나아가지 않고, 실리보다는 허세에 가까운 명분을 앞세우는 유학의 문약(文弱)에 젖은 힘 없고 허술한 국가 관리 부재와 실정에 어두운 무능하고 무기력한 위정자들의 실책(失策)에 있음을 부정하면서, 그저 침략자들이 저지른 무도함이나 탓하고 원망이나 하며 제 몸 하나 지키지 못해 시련을 당하면서 그 때마다 남의 탓이나 해야 하는 미련함을 끝내 버리지 않음과 같으니, 어리석은 이는 그 어리석음을 고칠 줄 모르고 거듭 반복하는 때 문에, 수난과 괴로움 또한 끊임없이 되풀이 하는 것이다.

동인·서인의 당파를 뿌리 뽑아야 한다고 파벌 초기에 선조에게 ‘울곡전서(栗谷全書)’

의 글을 올려 당쟁 문제를 최초로 다룬 이는 조정의 동향과 사정을 설명하고 나서 이렇게 호소했다.

“전하께서 신의 말을 대신들에게 내리시어 의논하되 신의 말이 옳다고 하면 신하들에게 동인·서인의 구별을 씻어버리게 하고 다시는 다툼을 벌이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오직 현인과 재사만 등용하고 어질지 못하거나 재주 없는 사람은 버리십시오. 같은 조정의 선비들이 한마음으로 나라를 위하고 다시는 의심해 틈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탁한 것은 내치고 맑은 것은 올려서 조정의 기강을 엄숙히 바로 잡으십시오. 자기의 의견만을 편벽되게 주장해 공의를 쫓지 않는 자가 있거든 제재해 누르십시오. 꼭 분쟁을 일으켜 말을 만들고 일을 벌이려는 자가 있거든 멀리 쫓아버리십시오.”

후대의 실학자 성호(星湖) 이익(李瀾)은 이해-싸움-붕당이라는 도식을 세우고 권력의 속성에 따라 빌붙는 당쟁의 원인을, 이익과 실리만을 가치로 삼은 사사로운 논쟁으로, 갈수록 더 분열한 싸움이라고 지적하였다.

“붕당은 싸움질에서 생겨나고 싸움질은 이해에서 생겨난다. 이해가 절박하면 그 당이 깊어지고 이해가 오래되면 그 당이 견고해지는 것은 시대 사정이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무릇 이익이 하나이면 사람이 둘이면 곧 두 당이 이루어지고 이익이 하나이면 사람이 넷이면 곧 네 당이 이루어진다. 그 이익이 옮겨가지 않고 사람이 더욱 많으니

여덟이나 열 개의 봉당으로 나누어지고 깊어지는 것이다.”

우리 불교사에는 ‘정도(正道)’의 관점에서 정사(正史)에 기록된 잘못 쓰여지고 왜곡된 채 알고 있는 부분을 정사(正思), 정어(正語) 차원에서 재조명하고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많다.

● ●
조선시대 불교사는 왜곡된 것 많아

특히 『조선왕조실록』 등 정사와 야사(野史)에 나타나는 불교관계 기사를 액면 그대로 믿기에는 적잖은 무리가 따른다. 왜냐하면 이들 역사기록이 쓰인 때는 불교 비판과 폄하를 당연시하던 가혹한 억불의 시대였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불교를 모략하고 깎아내려도 누구 하나 그 잘못됨을 두고 입벌려 말할 수 없는 때였다.

문제는 의도적으로 날조된 허황된 기사가 꾸민 이들을 두고 사실인양, 이제껏 후세 사람들이 그리 알고 인식한다는 점으로, 결국 국가 공권력이 저지른 거짓말 기록을 믿고 말함은 또 다른 거짓을 낳으며, 다른 거짓된 행위를 하게 되는 악순환의 고리로써 ‘역사는 힘 있는 자의 의도대로 쓰여진다’ 함은 조선왕조실록 또한, 술한 사림(士林)의 화(禍)

로 그 때마다 권력세력이 바뀌면서 과당싸움이 극열했던 때일수록 수정, 개정된 손질의 흔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까닭도 이런 이유에서이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불교가 학문일 뿐인 유학으로부터 비판과 박해를 받은 것은 표면적으로는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지만 유학을 장려하며 관습 및 유가풍습의 잣대로서는 맞지 않은 불교를 배척하고 깎아내리지 않으면 아니 되었기에 무지함을 드러내면서까지 억지를 부리며 핍박하였다. 거슬러 올라가 신유학(新儒學)의 개념과 원류를 보면, 고려의 안향이 이 땅에 처음 들어온 주자학의 주희(朱熹, 1130-1200)만 하더라도 일찍부터 불교에 심취하여 당대의 선지식이며, ‘선(禪)’의 스승이라 불리는 대혜종교(大慧宗杲, 1068-1163)¹⁾ 선사를 스승으로 선을 닦아 익혔다.

이렇게 배운 사상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신유학적 진로를 모색하며 공·맹사상을 계승하는 새로운 유학 체계 질서를 구축했던 그는 지식인답지 않게, 지난날 자신의 정신적 토양을 제공한 불교를 두고 배은망덕하게도 ‘선(禪)은 관념적’이라며 비난한다.

주희를 가르친 정자학(程子學, 유학의 부류)의 이동은 불교를 수박 겉핥듯 피상적으

로 아는 문외한이면서 아는 척하며 선리(禪理)를 말하는 주희를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그대는 허공에 뜬 이론과도 같은 ‘선’을 알 뿐, 눈앞의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다. 진리는 현묘(玄妙)한 것이 아니다. 다만 일용(日用)의 사이사이 착실하게 연구함으로써 자연히 터득할 수 있는 것이다”는 안하무인격 허황된 가르침으로써 불교를 호도(糊塗)했고 주희 또한 이를 비판없이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 무렵 관리(官吏, 1149-1153)로 있던 주희는 과거 스승으로 섬기고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며 선 수행의 한 방편이자 방식인 오랜 은둔(칩거)생활을 통해, 그 자신을 형성케 한, 종교선사의 부음(訃音)을 듣고도 그는 모른 채 한다.

● ●
불교탄압은 주희의 훈고학 때문

송학자들 자신을 ‘의리지학(義理之學) 혹은 ‘도학(道學)이라 하여 공·맹 서적을 철학적으로 연구한 주희에 의해 재정립된 신유학(新儒學)을 ‘일용인륜(日用人倫’, 일용사에 착실히 연구하여 현실과 구체적 사물간에 괴리를 두지 않는 것임을 주의, 주장하면서 모순되게도 까닭 없이 옛 스승을 저버리고 그것도 모자라 비난하며 결과적으로 자신을 형성시킨 뼈대며 밑바탕적인 불교를 배격하는 행위가 학자의 양심으로서 그럴 수 있으며, 참다운 지식인으로서 그것이 온당한 처사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리에 맞는 일이라며 ‘의리지학’을 추구하는 학문임을 내세우는

것이 유학의 가르침인가? 주희에 의해 재정비된 ‘훈고지학(訓考之學)의 유학을 조선왕조는 ‘신진유림(新進儒林)의 뜻을 받아들여 치국의 이념으로 삼으면서 민족종교로 토착화된 불교를 그토록 모질고도 야멸차게 질시하고 탄압한 데는, 이처럼 자신의 독자적인 학문 영역을 개척한답시고 명리를 탐하는 글재주를 세속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한때 스승으로 받들던 종교선사를 음해하며 혈투는 주희의 비이성적인 경솔한 행위에서부터 비롯된 원형질적인 것이기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서 주희와 그의 유학의 스승이었던 이동이 “선(禪)의 관념성을 뼈저리게 느꼈다”고 하며, 불교를 싸잡아 비난한 대목이 되짚어 보면, 우선 무엇보다 사실에 기초한 최소한의 노력의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터무니 없이 허황되고 편벽된 배타적 악의인 것을 알 수 있다.



1) <벽암록>을 지은 원오극근(圓悟克勤) 선사의 법을 이었고, 간화선(看話禪) 수행법 체계를 완성하였으며, 현재 승가대학의 교재로 채택된 ‘사집(四集) 가운데 하나인 ‘서장(書狀)을 비롯한 정법안장(正法眼藏) 6권을 짓다.



깨달음을 위한 불자들의 귀의처, 탑

▲ 마하보디대탑

조명래 / 불국사 문화유산 해설사

탑의 기원은 부처님의 사리(舍利)를 봉안하고 그 위에 흙이나 돌을 높이 쌓아 만든 것에서 유래하며, 이는 무덤, 묘, 영지(靈地)를 의미한다. 산스크리어로 '스투파(Stupa)' 또는 팔리어로 '투파(Thupa)' 라고 하는데 중국으

로 전해지면서 중국식 발음인 '술도파(率堵婆)'와 '탑파(塔婆)'로 표기하였고 이를 줄여서 '탑'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부처님께서 '구시나가라'에서 열반하신 후 말라족이 인도의 장례 풍습에 따라 화장을

하고 나온 부처님의 사리로 탑을 세우려고 하였으나, 마가다국을 비롯한 여덟 나라 국왕의 요청에 따라 사리를 8등분하여 각기 자기 나라에 탑을 세웠는데 이를 '근본팔탑(根本八塔)'이라 한다.

이때 부처님의 사리분배를 원만하게 중재한 '드로나'라는 바라문은 부처님의 사리를 담았던 병(또는 항아리)을 넣은 병탑(瓶塔)을 세웠으며, 부처님의 열반소식을 뒤늦게 전해들은 모라족은 할 수 없이 화장터에 남았던 재를 가져가 재탑(灰塔)을 세웠는데 이들 10기의 탑이 최초의 불탑으로 탑의 기원이 되었다.

분사리와 탑의 확산

인도를 최초로 통일한 마우리아 왕조의 아소카왕(BC 273~BC 232년)은 전 영토에 84,000여기의 탑을 세우고 근본팔탑을 발굴하여 부처님의 사리를 나누어 봉안하였다. 아소카왕은 이렇게 석가모니의 유골을 전국에 고루 분산시켜 석가모니 부처님의 위대한 생애와 깨달은 진리를 탑이라는 구조물을 통해 백성들에게 보여줌으로써 불교적 통치 이념을 굳건하게 세우고자 하였다.

이후에 스투파는 더 이상 인도의 전통적인 무덤이 아니라 성스러운 구조물로서 백성들의 경외와 참배의 대상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석가모니 부처님의 실재(實在)로 인식되었으며, 불탑이 전 세계로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다.

처음에는 마을의 높은 장소나 길 중심에

세워지던 불탑이 차츰 사찰의 내부에 건립되었고, 자연스럽게 불탑의 주변을 돌거나 그 앞에 엎드려 석가모니 부처님을 숭배하게 되었다. 또한 불탑을 조성한다는 것은 공덕을 쌓는 것으로, 불탑을 숭배한다는 것은 석가모니 부처님께 귀의하는 것으로서 불교의 중요한 예배대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경전에 따르면,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가 매우 많이 나왔다'고 전하지만 급속도로 확산되는 모든 탑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두 봉안할 수는 없었던 만큼 그 대용품을 찾지 않을 수 없었다. 사리 대신 경전을 넣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법신사리(法身舍利)'라고 하며,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장터 흙이나 광물질, 그리고 사리와 비슷한 유리구슬 등을 봉안하기도 하였는데 이것을 '변신사리(變身舍利)'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백제시대 군수리절터 목탑지, 통일신라시대 황복사지 삼층석탑, 고려시대 월정사 팔각구층석탑, 조선시대 수종사 팔각오층석탑 등에서 탑 안에 불상이 발견되었는데 이것 역시 변신사리의 일종으로 불교가 융성해지면서 부처님의 진신사리와 경전, 불상은 동일한 것으로 인정되어 모두 탑 안에 봉안될 수 있었다.

인도의 탑 - 스투파의 구조와 상징성

오늘날 초기의 인도 스투파들은 거의 남아있지 않으나 산치에는 BC 3~BC 1세기경에 세워진 3개의 스투파가 남아있다. 그중에서 완벽하게 남아있는 제1스투파를 살펴보면, 스



◀ 다메크 스투파

투파는 베틀카(vedhika)라는 울타리로 외부와 완전히 구분된 공간에 서있는데 내부공간에는 1단 혹은 2단의 기단 위에 벽돌과 흙으로 쌓아올린 '안다(anda)'라고 불리는 반구형 돔이 올려지고, 돔의 윗부분에 편평하게 마련된 자리에는 '하르미카(harmika)'라는 난간으로 둘러싸인 사각형의 구조물이 있으며, 돔의 중심부에서부터 안다의 정상까지 야슈티(yasti)라는 기둥이 있고, 도넛 모양을 한 여러 개의 차트라(chattra)가 기둥에 꽂혀 있다.

이처럼 비교적 단순한 모습을 하고 있는 스투파는 웅대한 우주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고대 인도인들이 세계의 중심에 높이 솟아있다고 생각했던 수미산은 그 높이가 약 80만km이고 주변에는 구산팔해(九山八海)로 둘러싸여 있으며 정상에는 신들이 살고 있는 수평적 세계인 33천(天)이 있다고 한다. 스투

파는 바로 수미산의 관념체계를 공간을 점유하는 구상물(具象物)로 옮겨놓은 것이다.

고대 인도인들은 스투파가 세워지는 곳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 따라서 스투파는 신성하고 청정한 장소이기에 '베틀카'라는 울타리로 세속과 성역을 구분한 것이며, '안다'는 구산팔해를 둘러싸는 거대한 돔으로 천상의 돔, 즉 우주를 뜻하는 것이다. 수미산 정상에 33천(天)이 있듯이 '하르미카'는 수미산 정상에 위치한 천계(天界)를 의미하고 '차트라'는 그 하나하나가 천신(天神)의 세계를 상징하며, 그 중앙에 세계의 중심 기둥인 '야슈티'가 있는데 그 아래에 스투파의 핵심인 석가모니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하였다.

원과 사각으로 이루어진 스투파의 평면은 정확한 방위에 의해 결정된 것으로 태양을 상징하는 것이다. 사방에 있는 문은 오른쪽

으로 회전하는 만(卍)자 형을 하고 있는데 이는 경배자들이 태양의 운행방향을 따라 돌도록 우주의 움직임인 만자가 스투파에 응용된 것이다. 이런 구조를 하고 있는 스투파는 그 구조가 갖는 상징성으로 인해 경배의 대상이자 대우주를 축소시켜 놓은 소우주로 여기게 되었던 것이다.

인도의 스투파는 시대와 지역에 따라 그 형태적 차이를 보이는데 인도의 중·남부의 스투파는 기단이 낮고 돔 형태의 '안다'를 크게 강조하면서 상륜부를 낮고 단순하게 처리한 반면, 서기 1~5세기경 서북 인도에서 유행하였던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받은 스투파는 기단부가 3~5단의 여러 단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며, 상륜부의 차트라도 10개 이상 마련되고 위로 갈수록 뾰족해져 상승감이 돋보이는 형태를 하고 있다.

중국의 탑

인도 간다라 미술의 영향을 많이 받은 중국의 탑은 인도의 스투파와 달리 누각 형태로 변화 발전한 것이 특징이며, 인도의 스투파 형태가 누각의 최상층 중심에 축소모형으로 장식된다는 점은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의 탑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모습이다. 탑이 중국에 전래된 이래 그 성격이 '무덤'에서 '건축물'로 변화하면서 간다라식 스투파가 상징적인 모습으로 상륜부에 올려져 지금까지 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의 탑은 전탑(轉塔)과 목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탑의 평면은 원형, 12각, 8각,

6각, 4각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원형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법륜(法輪)을 상징하는 것이다. 법륜에 새겨진 4·6·8·12·16개 바퀴살의 꼭지점을 연결하면 다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나무와 벽돌을 주재료로 하는 중국의 전통적인 건축양식과 결합하면서 다각형의 목탑과 전탑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의 다각형 탑은 우리나라에 전래되면서 사성제(四聖帝)·육바라밀·팔정도(八正道) 등의 불교교리의 영향으로 사각형, 육각형, 팔각형 탑으로 발전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탑은 북위 효문제 정광(正光) 4년(523년)에 건립된 하남성 송악사(嵩岳寺)의 12각 15층 전탑이다. 황하 유역의 풍부한 진흙으로 벽돌을 굽고, 이를 건물 또는 무덤에 사용하는 기술은 전국시대 말기부터 전해왔던 중국의 전통건축 기법의 하나였다. 당나라 이후 전탑이 목탑보다 많이 만들어졌고, 이러한 경향은 송·금나라로 이어지다가 원나라 이후에는 목탑은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다.

옛날 중국의 황제나 왕의 무덤을 일러 '능침(陵寢)'이라 하였는데 이는 '무덤의 형태가 집의 형태와 같다'는 의미이다. 1978년 하북성 정산현에서 발견된 전국시대 중산국(中山國) 왕의 능에서 출토된 동판에 의해 능이 3층의 목조누각으로 된 능침이었음이 확인할 수 있었고, 한나라 무제 무릉의 경우에는 능의 윗부분에서 무수한 기와와 전돌이 흩어져 있어 목조건축물이 존재하였음을 추



① 산치대탑 ② 육화탑
③ 차우칸디 스투파 ④ 다메크 스투파

정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고구려 장수왕의 왕릉인 장군총의 윗부분에서 목조 건축물의 흔적이 발견되었고, 발해의 경우 훈춘 마적달탑과 화룡 정효공주묘의 탑은 무덤 위에 세워진 전탑이었다.

원래 석가모니 부처님의 무덤이었던 불탑이 중국에 전래된 이후에 무덤 위에 목조건축, 즉 목탑을 건축하는 형태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고구려와 발해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야슈티’의 아래에 사리를 봉안하는 인도 탑과는 달리 중국 불탑의 경우 전탑이나 목탑에서 공통적으로 사리를 지하 약 3m 깊이에 봉안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는 서안의 법문사(法門寺) 전탑으로 당나라 영태공주(永泰公主)의 무덤과 그 형태나 규모가 거의 같은 것을 볼 때 묘제(墓制)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중국의 불탑은 전통적인 묘제를 바탕으로 하여 인도 스투파가 지닌 상징성을 상륜부에 구현하는 한편, 황제와 석가모니를 동일시하는 ‘왕즉불사상(王即佛思想)’이 더해진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인도 · 중국의 초기시대 불탑

① 인도의 산치대탑

인도 중부지역에 자리한 작은 마을 산치는 BC 2~1세기에 아소카 왕이 건설한 탑과 사원 등이 남아 있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불

교의 성소이며 AD 12세기까지 인도불교의 중심지였다.

인도 중부 마드야 프라데쉬주의 수도 보팔 근처 북부 46km 지점에 자리한 작은 마을 산치는 인도에서 가장 오래 되고 중요한 불교 조각 예술품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산치대탑은 그 가치를 보여주면서 인도 불교의 발전사를 집약해 놓은 곳이다.

② 중국 절강성 항주의 육화탑

중국 절강성 항주의 육화탑은 최초로 송나라 때 만들어진 전탑이다. 벽돌로 탑 내부를 만들었으며 외부의 처마는 모두 목구조로 송나라 때 만들어졌다. 외부의 처마 부분은 청대에 보수한 것이다. 이 탑의 평면은 8각형으로 외관

은 13층, 높이는 59.8m 규모다.

③ 인도의 마하보디 대탑

석가모니 부처께서 보리수 아래서 6일간 명상 끝에 깨달음을 얻은 보드가야에 있는 탑이 마하보디 대탑이다. 기원전 3세기경 아쇼카 왕이 최초로 세웠으며 현재의 9층 탑은 19세기에 증축된 것이다. 52미터 탑 옆에는 보리수가 있으며 탑에는 본생담과 연꽃이 조각되어 있다.

④ 차우칸디 스투파

깨달음을 얻은 붓다가 함께 고행하던 사문을 찾아 사르나트로 왔는데 예전의 사문 5명과 처음 만난 곳에 세워진 탑(일명 佛迎塔)이 바로 차우칸디 스투파이다.

예전에는 더 높았으나 아프간 이슬람교도들에 의해 파괴되었고 상층부는 이슬람 양식으로 후대에 지어졌다.

⑤ 다메크 스투파

기단부 직경이 28m, 높이 43m에 이르는 대탑으로 사르나트의 상징이다. 마우리아 시대에 진흙과 벽돌을 사용해 건립했고, 굽타 시대 때 아름다운 무늬를 새긴 돌로 장식했다. 지금도 인도에는 성스러운 것을 형겁으로 덮는 관습이 남아 있는데, 다메크 스투파의 무늬도 스투파 전체를 덮기 위해 제작된 형겁 덮개의 자수무늬를 옮긴 것으로 추측한다. 이 탑에는 여덟 개의 감실이 있는데, 그 안에 모셨던 불상은 그 행방을 알 수 없다.

비구니의 전통 강원 김천 수도산 청암사

청암사가 자리잡고 있는 수도산(修道山)은 불령산, 선령산이라고도 한다. 해발 1300여m의 준봉인 수도산은 신라 말 때 참선 수도장으로 유명한 수도암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 청암사 대웅전

경북 김천에 있는 수도산에는 많은 암자와 사찰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천연 그대로의 자연을 고이 간직한 천연 고찰 청암사이다. 청암사는 신라 헌안왕 3년(859년) 도선국사가 건립하였다. 이후 허정대사, 환우대사, 대운대사 등이 중창했다.

청암사는 비구니도량이다. 우리나라 5대 비구니 강원 중에 하나인 비구니 승가대학이 있다. 우리나라 5대 비구니 강원은 청암사 승가대학을 비롯해 운문사, 동학사, 봉녕사, 삼선승가대학이라고 한다.

이곳은 조선시대 화엄학의 대가였던 회암 정혜스님이 주석하면서 불교강원으로 명성을 드날렸다. 그의 가르침을 통해 많은 제자들이 강원의 명맥을 이어져 오다가 1960년대에 이르러 고봉이라고 하는 걸출한 선지식을 배출해내기에 이르렀다. 고봉(1901~1969) 스님은 해인사, 범어사, 청암사 강원의 강주를 맡아 많은 제자들을 길러내기도 했다. 당시 많은 학인이 경을 배웠지만 이후 쇠락해

졌다고 한다. 하지만 1987년 현재 주지이자 강주인 지형스님이 청암사 내에 비구니 승가대학을 설립하고 넓은 도량을 보수하고 부속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전통강원의 맥을 더욱 튼튼해지게 뿌리내렸다.

청암사 일주문을 지나서 아릅드리외의 전나무와 굴참나무 사이로 지나가다 보면 오른쪽에 ‘우비천’이라고 쓰인 샘이 나온다. 청암사는 소가 누워있는 와우형이라고 하는데 이 샘은 소의 코 부분에 해당되어 ‘우비천’ 혹은 ‘코샘’이라고 부른다고 한다.

우비천 옆에 붙여진 안내문에는 “예로부터 이 샘에서 물이 나오면 청암사는 물론 증산면 일대가 부자가 된다고 하며 이 물을 먹으면 부자가 되는 것이라는 전설 때문에 재물을 멀리하게 되는 스님들은 이 샘 앞을 지날 때 부채로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도 하였다”라고 쓰여 있다.

일주문을 지나 처음으로 만나는 전각인 천



▲ 일주문

왕문에는 사천왕상이 있다. 하지만 이곳 사천왕상은 다른 절과 달리 그림으로 되어 있다.

법당은 천왕문을 지나 산길을 한참 올라가야 나온다. 법당에 이르기 전에 있는 계곡의 바위에는 많은 글자들이 새겨져 있다. 그 중에 '최송설당'이라 쓰인 글자가 자주 눈에 띈다. 조선 말 상궁이었던 최송설당은 고종과 엄비 사이에서 태어난 영친왕의 유모였다고 한다. 최상궁이 영친왕을 잘 돌본 공로로 하사받은 금품으로 오늘의 청암사를 재건했다고 한다.

청암사는 계곡을 사이에 두고 대웅전 영역과 극락전 영역으로 나뉜다.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다포계 형식과 팔작지붕을 갖춘 건물이다.

대웅전에 모셔져 있는 불상은 우리나라 사찰에 있는 여느 불상과는 조금 다르다. 김천시청 자료에 따르면 "대운스님이 1914년에 중국 항주 영은사에서 조성한 석가모니불상이 봉안되어 있는데, 붉은 색 계주와 진홍빛 가사 안자락 등 청나라 말기 불상의 특징을 갖추고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다.

대웅전 영역에는 육화요라는 특이한 이름을 가진 건물이 있다. 육화요는 청암사 승가대학이 있는 전각의 이름이다. 새을(乙)자 형에 귀틀을 지닌 육화요는 승가대학의 중심을 이루는 건물이다.

육화란 신(身), 구(口), 의(意), 계(戒), 견(見), 이(利) 등 여섯 가지 법으로서 깨달음을 구하고 깨끗한 행을 닦되, 서로 친절하고 경애해야 한다는 승가의 실천 내용을 말한다.

고종 9년(1905) 대운스님이 빨간 주머니를 얻는 꿈을 꾸 뒤 한양에 가니 어느 노보살님이 대시주를 하며 자기가 죽은 뒤 3년간 염불해 주기를 원하였다. 이리하여 쇠락한 극락전을 중건하고 만일회



- ① 청암사 최대 시주자인 '최송설당' 각자가 새겨진 바위
- ② 고봉스님의 승탑과 탐비
- ③ 승가대학의 정법루와 육화요



(萬日會)를 결성하여 염불소리가 끊어지지 않게 하였다

극락전 뒤채인 보광전은 1689년 조선 숙종의 정비 인현왕후가 폐위된 뒤 서인 시절에 기도를 드렸던 곳으로 그 같은 인연으로 조선 말기까지 왕실의 상궁들이 내려와 이곳에서 기도를 했다고 한다. 보광전에는 목조 42수 관세음보살상이 봉안되어 있다.

또 청암사 수도암은 청암사와 함께 도선국사가 창건한 암자로 여러 번의 중수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내에는 삼층석탑과 약광전 석불좌상 등 문화재들이 있으며 수도계곡은 갖가지 비경을 품고 있다.

구불구불한 고갯길을 굽이굽이 힘들게 올라가야 만날 수 있는 청정도량 청암사에서 뿔어져 나오는 법향은 불자들의 발길을 사로

잡기에 충분하다. 삼산유곡을 따라 늘어선 울창한 수목과 사시사철 흘러넘치는 깨끗한 계곡물은 속세의 때를 씻을 수 있는 별천지 그 자체이다.

청암사 가는 길

승용차 경부고속도로 김천C에서 내리면 거창 방면 3번 국도를 따라 대덕면 대덕주유소에서 좌회전해 가릿재를 넘으면 되고 경부고속도로 왜관C에서 내리면 성주, 무주 방면 30번 국도를 따라 약 1시간 정도 달리면 청암사가 나온다. 대중교통은 김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증산행 버스를 타면 된다.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을 앞둔 7월 26일, 70년대 인기 불자 가수 김태곤을 비롯해 역시 80년대 인기 가수 출신 비구니 보현스님이 출연한 산사음악회가 열려 300여 불자들이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했다.



- ① 산사음악회에서 우담바라합창단 등 연합합창단의 합창 모습
- ② 가수 김태곤이 해금을 연주하고 있다.
- ③ 댄스 스포츠팀의 화려한 공연
- ④ 인기 가수 출신 비구니 보현스님의 열창 모습



백중맞이 영가천도 49재

우란분절이자 백중인 8월 21일, 5백여 불자들이 49일간의 천도재를 회향하는 법회를 봉행했다.



- ① 49재 영가천도재에 동참한 불자들이 영가 전에 절을 올리고 있다.
- ② 법회에 동참한 5백여 불자들의 모습
- ③ 회향 법회에서 음성보시를 하는 우담바라합창단원들
- ④ 법회에 공양한 제물들을 불사르는 모습

법왕사 소식

7월 27일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



지난 4월 19일 입재한 제24회 백고좌법회가 7월 27일 조계종 원로의원 불심 도문스님의 회향법문을 끝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백고좌법회는 매일 약 20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해 법당을 가득 채웠으며 대한민국의 불교를 대표하는 100인의 큰스님들께서 불교경전 전반을 아우르는 경율론 삼장에 대해 설법하여 불자들이 두루 공부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24회 백고좌법회 보살계 수계대법회 봉행



지난 7월 26일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을 앞둔 제99일차 법회에서 전 해인사 율원장이신 혜능 스님을 법사로 모시고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법회에는 200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불명과 보살계를 수계하고 참된 불자로 거듭나 더욱 굳세게 정진하기로 다짐하였습니다. 계를 내린 혜능스님은 “불자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이 바로 오계(五戒)를 받아 지내는 것입니다. 경

전에 이르기를, ‘계(戒)는 하늘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바다를 건너는 배와 같으며 어둠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고 했습니다.”며 수계의 의미와 참된 불자의 도리에 대해 설법하였습니다.

오는 9월 1일 제25회 백고좌법회 입재



법왕사에서는 오는 9월 1일부터 제25회 백고좌법회를 입재합니다. 7월 27일 회향한 제24회 백고좌법회에 연이어 봉행하는 이번 법회는 법왕사가 공부와 수행을 제일로 삼는 도량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법왕사를 상징하는 법회가 되었습니다. 한편 이번 법회 중간에는 인천 용화선원에 주석하고 계신 송담 큰스님 친견 및 화두·불명 수지법회와 기타 문화행사도 다양하게 열릴 예정이오니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계속 많은 동참 바랍니다. 법왕사는 지난 1991년 창건 이래 최소한 1년에 1회 이상 백고좌법회를 개최하였으며 우리 지역 불자들에게 전국의 고승대덕들의 설법을 가까이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왔습니다. 백고좌에는 1백좌의 보살과 나한상을 모시므로 이를 장엄할 1백송이의 꽃과 향, 백미가 필요하오니 불자 여러분의 많은 보시 바랍니다.

백고좌법회 회향 일만등 공양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7월 27일 전야(26일) 오후 7시에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와 더불어 일만등 공양 특별법회를

법왕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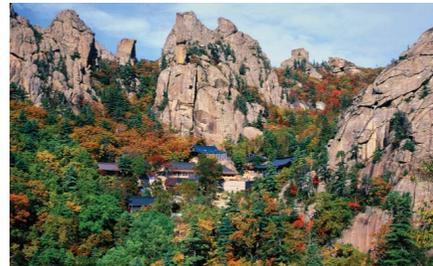
봉행하였습니다. 100일 동안 심 없이 열어진 법회를 마치면서 불자들의 간절한 소망을 일만개의 등등으로 밝혀 공양하는 뜻 깊은 법회에 5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백고좌법회 전야 산사음악회 봉행



지난 7월 26일 법왕사에서는 제24회 백고좌법회 회향일인 7월 27일 전야를 맞이하여 오후 7시에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는 산사음악회를 봉행하였습니다. 이날 음악회에는 법왕사 불자와 시민 등 3백여명이 모인 가운데 만불전에서 인기 가수 김태곤과 80년대 가수로 인기를 모았던 비구니 보현스님과 뮤지컬 배우 정민경, 법왕사 우담바라합창단 지휘자 정무시 선생이 출연하여 흥겨운 한마당을 연출하고 백고좌법회 회향을 축하하였습니다.

설악산 봉정암 순례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8월 2일부터 4일까지 2박3일간 불자 1백여명이 동참한 가운데 설악산 봉정암을 참배하

였습니다. 유달리 더웠던 올해 여름이지만 이번 일정에는 불심 깊은 불자들이 많이 동참하여 뜻깊은 법회가 되었습니다. 봉정암은 우리나라 5대 적멸보궁 가운데 하나로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한 도량으로 유명한데 불심 깊은 불자들은 생전에 꼭 한번 참배하고 싶어 하는 도량인데 이번 코스는 백담사 - 오세암 - 봉정암(1박) - 수렴동계곡 - 백담사로 이루어졌습니다.

계사년 백중(우란분절) 맞이 49일 기도법회 봉행



법왕사에서는 계사년 백중(음력 7월 15일)을 맞이하여 지난 7월 4일부터 49일간 백중맞이 기도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우란분절은 부처님의 제자로 효심이 남달리 컸던 목련존자께서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천도하여 생인 명절로 예부터 조상 영가 천도를 위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회향법회에는 2백여 불자들이 동참하여 그동안 재를 올렸던 영가 위패를 사르고 모든 법회를 회향하였습니다.

4층 대법당 천장 우물반자 닦집 대작불사 시작

법왕사 복지관 4층의 대법당 천장 우물반자 닦집 대작불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천장 높이만 9m에 이르러 매우 웅장한 규모인 대법당은 천장 장엄을 마무리하면 여법한 기도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 불자들이 자유롭게 참배할 수 있는 곳이 될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법왕사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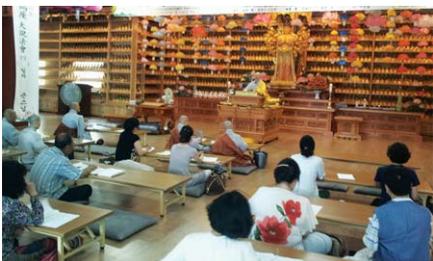
BBS '우리절 우리스님' 프로그램에 실상스님 출연

법왕사 주지 실상스님께서 BBS 불교방송 전국 프로그램인 '우리절 우리스님' 프로그램에 출연하기 위해 8월 27일 녹음을 마쳤습니다. 방송은 8월 31일 오전 7시에 40분 동안, 9월 1일 오전 7시에 40분 동안 각각 전파를 타게 됩니다. 이 방송에서 스님은 법왕사 창건에 얽힌 비화와 앞으로의 포교 계획 등을 밝혔습니다.

BBS 불교 TV에 법왕사 소개영상 촬영

7월 26일, 27일 양일간 BBS 불교 TV '사찰 탐방 절로절로' 프로그램에서 법왕사를 소개하는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백고좌법회 회향에 즈음해 촬영한 이번 프로그램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백고좌법회를 병행하는 도량이며 불교복지에 큰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법왕사를 전국의 불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기획된 것입니다.

불교대학 고급반 금강경 강독 성황



지난 7월 4일 개강한 법왕불교대학 고급반 '금강경 강독' 5개월 과정에 50여명의 불자들이 동참하여 한 여름 무더위도 잊은 채 불법 탐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좌의 주제인 금강경은 조계종의 소의경전으로 대승불교의 핵심 개념인 공(空) 사상을 가장 잘 드러낸 경전입니다. 또한 강의를 맡은 활안스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대강백으로 재미있고 깊이 있는

해설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의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2014학년도 수능 100일 관음기도 봉행중

법왕사에서는 2014학년도 대입 수능에서 고득점을 기원하는 100일 관음기도를 지난 7월 31일 입재하여 수능일인 11월 7일에 회향하는 일정으로 봉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을 둔 불자들은 영험 있는 기도도량인 법왕사에서 100일 관음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고 좋은 성적 거두시기 바랍니다.

법왕불교대학 중급, 고급반 모집

법왕불교대학에서는 불교에 입문하여 더욱 깊은 교리공부를 원하는 불자들을 위해 주야간으로 중급, 고급반을 개설합니다. 중급반은 스리랑카에서 10여년간 유학하면서 남방불교를 깊이 연구하고 최근 돌아온 영일스님께서 '빨리 불교원전' 강좌를 3개월 과정으로 하며, 고급반은 설법제일로 이름난 활안 큰스님께서 5개월 과정으로 고급 교리에 대해 강의합니다.

해오름복지관 전면 잔디마당 조성



해오름복지관 전면에 고운 잔디를 깔아 어르신들이 휴식하며 담소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한더위가 가시면서 어르신들은 삼삼오오 잔디밭에 나와 주지스님과 간호사 선생님과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한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법왕사 게시판

수능기도 올리신 분

백인수 10만원 이호재 10만원 남상훈 10만원
남제정 10만원 한혜지 10만원

사법고시 축원 올리신 분

백인혁

신중탱화 동참하신 분

우동진 강희정 김상운 김한솔 예진숙

생일 공양물 올리신 분

정입분 떡 3만원 김종구 떡 3만원
이호재 공양미 20kg 1포 박경만 1만원
정충홍 떡

시험합격기도 올리신 분

백인혁 3만원

하루 축원 올리신 분

김옥선 우혜경 서형필

원불봉안 하신 분

김소희(문수보살) 채수한(문수보살)
박세훈(관세음보살) 은이일연(지장보살)

물품보시 하신 분

박병기(행주대 20장)

백일기도 축원 올리신 분

최진규 10만원

대중공양 올리신 분

정돈 3만원 홍승규 35만원, 콩국수 100인분
손정동필 10만원 김기수 5만원 오진환 30만원
지장회 10만원 이화꽃집 국화 300송이

양혜영 크리넥스 10만원
조복래 야채 2만원 박해진 채소 2만원
이재학 야채 3만원 심규암 콩나물 2만원
정연이 3만원

과일공양 하신 분

김병주: 수박 10만원 김정순
오진환: 15만원 권혁만
바나나1박스, 수박 1통 이승재: 5만원
이세정, 정돈: 15만원 류운만: 과일일체
정광춘: 과일일체 30만원 김희동: 수박 1통
금강심: 휴지1, 수박 1통
권혁일: 과일 공양 일체
이정상: 칠석, 백중 6재 막재 과일공양일체
권혁진: 3만 5천원, 10만원 여택동 10만원
권혁관: 바나나1box 이정희 3만원

불사 도움 주신 분

산양준원 2백만원 박소영 100만원

사보 도움 주신 분

해월스님 200부 효법스님 400부 홍공덕 200부

법사비 도움 주신 분

관음회일동 50만원

요양원 기부금 하신 분

박종성 1만원 박경훈 1만원

돼지저금통 회향하신 분

홍공덕심 김상수 김종황

공양미 올리신 분(1포 20kg)

정돈, 정국영 은김태산 유명옥
박경영 조규인 류지훈
진종원 이태화 최태희
박성진 최남구 조기수
이희경 운동환 4만원 함지훈
이경란 김성도 홍의현

장식덕	이동학 4만원	심보현
김기수	장분예	조복래
이상희	박종성	이재학 5만원
서미경	김경희	전성광
신진은진	김정순	채용자
김상한	권혁일	조정훈
신동애	김순태	김경환
박귀분	김정희	윤재웅
이기창	최은정	신장희
최준호	안명희	황미선
고연숙	이태철	김순태
김경환	류윤만	임인한

떡공양 올리신 분

정충훈	조정혜
장재봉	구자환
양영갑 2되	이금삼 백짬 3되
심규암 송편 2되	김상수
신순진동 증편 5만원	정영미 절편 1되
양문갑 떡 1되	류윤만 2되
신이일연 팔시루 3되	
최지민, 최연재, 김소희 팔시루 3되	
신승익 백짬 3되	정국영 기지떡 2되
진종원 5만원	임복두
류지훈 2원	지장회일동 5만원
김봉조 5되	신범해 찹쌀모찌 3되
김정순 5만원	류윤만 7되
이주애	안준영
안효창 15만원	심규암 송편 2되
구자환 절편 2만원	이세정
정영미	도순자 절편 3만원
배해동(부창떡집) 절편 5되	양혜영 송편 3되
홍승규, 광중란 송편 2만원, 인절미 3만원	
권혁일 5되, 2만원	권혁만 찹쌀떡 1박스

정시영, 김예슬 송편 2되	해명심 20만원
박상익 10만원	신현수 3되
권상태 6되	정춘화 10만원
임인한 3만원	이중순 절편 3되
류윤만 2되	김봉조 5되
심규암 2되	황금석
백수경 2만원	이세정 약밥
장근순 3만원	김상수 2만원
부창떡집 2되	허정현 10만원
정민규 2만원	신용홍 3만원
남현우 3만원	

왕생극락 바랍니다

7월 30일 김태호 영가 초재가 있었습니다.
 8월 5일 송주상 영가 100제 회향이 있었습니다.
 8월 9일 이일연 영가 막재가 있었습니다.
 8월 16일 김성호 영가 기제사가 있었습니다.
 8월 24일 최영재 영가 기제사가 있었습니다.

행사

7월 31일 수능기도 입재
 8월 2일~5일 봉정암 순례
 8월 21일 백중기도 회향

결혼을 축하합니다

김중수 법무님의 장녀 연화양의 결혼식이 9월 8일 일요일 오후 12시 20분에 웨딩비엔나3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있습니다.

법왕사 계좌번호

- ◎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 ◎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후원금 수입 및 지출내역(7월)

◎ 수입내역	홍유식 5천원	이중희 5천원
김주희 5천원	홍유식 5천원	이중희 5천원
한규매 5천원	신임선 5천원	윤광숙 5천원
안경순 1만원	정연이 5천원	권혁봉 5천원
김원형 3만원	장인숙 5천원	이인순 5천원
문정원 1만원	고선영 1만원	권오성 1만원
김봉숙 5천원	박장목 1만원	김승환 5천원
강신규 5천원	오난우 5천원	이호동 5천원
김예분 1만원	박태숙 5천원	이점례 5천원
박명숙 1만원	최창목 5천원	이병희 1만원
최경순 1만원	최복례 1만원	이현우 1만원
김순관 3만원	성외련 2만원	오금옥 1만원
이은주 1만원	신구자 5천원	고연숙 1만원
박대희 5천원	문정애 2만원	조영석 1만원
정활수 3만원	이남희 1만원	류윤만 1만원
박학순 1만원	임상덕 1만원	안상준 2만원
노귀자 5천원	김정희 1만원	김임태 5천원
강소남 5천원	이정옥 1만원	윤순희 1만원
이경숙 2만5천원	박원태 1만5천원	황미선 2만원
김미옥 2만원	권보령 2만원	김유진 1만원
김정임 1만원	김수라 1만원	홍세림 1만원
유명옥 1만원	권숙자 1만원	최분규 1만원
홍새미 1만원	김기덕 2만원	현영희 1만원
양나영 5천원	조규인 1만원	이임숙 2만원
강영도 2만원	정광춘 5만원	사공관 1만원
박순영 5천원	이정훈 1만원	여축동 1만원
이점례 5천원	임익균 1만원	심규암 5천원
신혜경 5천원	이성자 5천원	곽순복 2만원
김정자 5천원	안명희 1만원	채옥연 5천원
강선옥 1만원	김기수 2만원	김정임 1만원
배수현 2만원	김진성 1만원	구정대 2만원
현인숙 1만원	신돈식 1만원	심중순 5천원
김순태 1만원	노수정 1만원	여택동 5천원
홍세림 1만원	김민주 1만원	권계화 1만원
조나숙 1만원	장우성 1만원	김정순 3만원
김정호 5만원	한은숙 5만원	박종성 2만원
박경훈 2만원	이강복 1만원	황정희 5천원
이은희 5천원	우포정사 1만원	
무기명 7만9천8십원		

합계 1,374,080원

◎ 지출내역	
- 부식구입	173,720원
- 꽃바구니(근조)	100,000원
- 영양식품	99,000원
- 프린터대여금	50,000원
- CMS수수료	66,000원
- 짜장면	32,000원
- 컴퓨터수리비	40,000원
- 문자통지수수료	1,000원
- 오리고기구입	89,000원
- 안전잠금장치	29,150원
- 약품구입	5,200원
- 어르신 담배구입	23,000원
- 나들이 식대비	84,000원
- 미술관 입장료	12,000원

7월 총 사용내역 804,070원

잔액 570,010원 (2013년 7월말 기준)

※ 해오름요양원을 위해서 후원해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월 사보를 통해서 수입,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할 것이며 남은 금액도 어르신들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 해오름요양원에서는 후원자님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CMS자동이체신청을 개설했습니다.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오시면 신청서가 구비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나누는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후원물품 보내신 분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박수연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교촌치킨 2통
 이일연 어르신 보호자 : 이동보조기 1대
 권민자 어르신 보호자 : 사탕 2봉지
 녹색환경봉사단 : 사탕 2봉지, 디팬드 60매, 속기저귀 50매, 걸기저귀 50매
 박말분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커피믹스 240개
 김덕순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76개, 바나나 8손, 사과즙 1Box, 참외 1Box, 비타500 2Box, 두유 25개, 요구르트 50개, 황도캔 1Box
 서선화 어르신 보호자 : 수박 1통
 장태순 어르신 보호자 : 오렌지주스 1Box
 백복순 어르신 보호자 : 요플레 28개
 임성녀 어르신 보호자 : 포도 2Box, 바나나 3손
 채분이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수박 1통



제25회 백고좌(36일차) 이동법회 및 송담스님 친견 및 화두·불명 수지법회 봉행

법 회 화두, 불명, 심선계 수계법회
 일 시 2013년 10월 6일(일)
 출 발 오전 7시 법왕사 주차장
 장 소 인천 용화사

진병호 어르신 보호자

: 비타500 2Box, 요구르트 15개, 주스 2개

백복달 어르신 보호자 : 야구르트 15개

장석순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1Box

윤말줄 어르신 보호자 : 아이스크림 10개

정잠분 어르신 보호자 : 박카스 2Box

장말순 어르신 보호자 : 포도 1Box

굿실버노인복지센터 : 롤케익

장성태 : 음료수 1Box

장어와 미꾸라지 : 주어탕 15인분(7월, 8월)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사활동 하신 분

7월 21일 : 녹색봉사단 30명

7월 28일 : 써포터즈 13명

8월 18일 : 녹색봉사단 30명

해오름요양원 새가족

신규 입소 어르신

: 차수학, 장석순, 정잠분, 진병호 어르신

* 어르신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

해오름요양원에서는 각종 프로그램 진행 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기부에 관심 있는 자원봉사자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활동일시

- 매주 1~2회 14~15시(시간, 요일 조절 가능)

○ 활동분야

- 미술활동, 음악활동, 종이조형, 아로마요법, 생활체육, 요가, 민요, 원예, 다도, 놀이활동 등

○ 신청방법

- T.053-766-5767 담당 사무국장 강선옥
- 방문접수 법왕사 1층 사무실(수성구 파동로 51길 96)

요양원 입소 안내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환으로 장기 요양 등급 1~3등급 (시설급여) 판정을 받은 어르신

○ 입소시 준비서류

- 장기요양인정서 1부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건강진단서 1부

* 어르신들을 위해 후원하신 물품과 후원금을 소중히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용료

- 기초생활수급자 전액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저소득층) / 국가유공자 본인부담금 10%
- 비급여항목(식대, 간식비) 별도 부담

○ 문의 전화 053)766-5767
팩스 053)766-5095

후원안내

금품후원 대구은행 505-10-119877-1

예금주 해오름요양원

물품후원 기저귀, 의약품, 세제류, 의복, 주·부식류, 생활용품 등

CMS자동이체 후원

법왕사 및 해오름요양원에 방문하셔서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1구좌 5,000원부터)

해오름요양원 첫 나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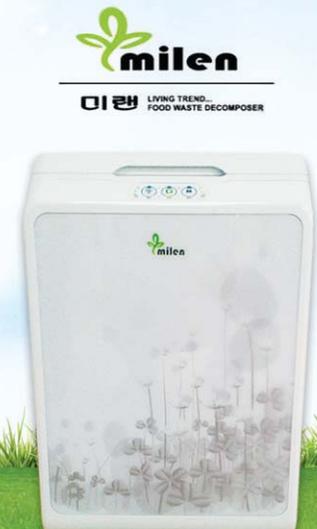


해오름요양원 개원 이래 첫 나들이를 대구미술관으로 다녀왔습니다! 전국 단위의 봉사 단체인 차량봉사단 써포터즈의 도움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나들이가 되었지요. 시원한 미술관에서 아이처럼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에 반한 써포터즈! 앞으로 격월에 한 번씩은 꼭 어르신들을 위한 나들이 서비스를 지원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음식폐기물 종량제 전면 실시

가정용 - 음식물 바이오 처리기

친환경 미생물을 이용한 발효·소멸방식



milen
미렌 LIVING TREND...
FOOD WASTE DECOMPOSER

- 세계최초 배기호스 NO
- 침출수 NO
- 약취, 세균 NO
- 필터교체 NO

- 캐나다 밴쿠버 세계박람회 최우수 상품 선정
- 스포츠서울 선정 2011년 기술혁신부문 브랜드대상 수상
- 친환경 녹색기업, 환경부 녹색인증 대상업체
- 설치가 필요없고 사용이 편리하며, 24시간 내 대부분 분해 소멸됨
- 2개월에 한번 비료로 사용
- 월 전기료 3,000원 미만

* 수익금 법왕사 해오름 요양원 후원 *

상담문의
㈜미렌바이오 대구중구총판 장성용 010-6527-6977
총판 / 대리점 / 영업사원 모집 / 주부환영

청정 지역 청송에서 100% 순 우리 콩으로 빛은 간장·된장

재래식 전통 비법으로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법왕사에서 청정지역 청송에서 재배한 순 우리 콩으로 빛은 메주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법왕사 메주는 우리나라 최고의 청정지역인 청송에서 재배하고 가공하여 맑고 깨끗한 환경에서 발효한 최고의 친환경 식품입니다.

간장 2만원
된장 3만원



구입문의 053-766-3747, 9088
대구은행 047-05-003698-6 법왕사
농협 702010-51-106490 법왕사

